



# 세리주보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2020. 12. 13. (나해) 제2245호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요한 1,26)



'세례자 요한의 설교', 피터 브뤼겔, 156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 “구세주 메시아여, 빨리 오소서”



평리분당 주임 | 이상해 스테파노 신부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앙적인 공백기, 내 신앙의 시험대, 일상의 생활 형태가 무너졌고, 살기 위한 격리와 단절로 인해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신앙인으로 하느님께 확신받고 싶은 때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세상이란 무대 뒤로 서서히 사라지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께로 쏠리게 되다는 사실에서 기뻐합니다. 메시아를 통한 사람들의 ‘구원’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요한 자신은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소리에 불과할 뿐, 결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증언자로서 하느님을 체험했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 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옳고 그름의 심판을 실행해 나가실 분이라고 알려주는 역할 외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었고,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위신이나 힘을 사용할 만한데도, 그는 증언하는 사람으로서의 겸손한 태도를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요한의 증언은 목숨을 건 행동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오늘은 자선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어렵고 온통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가정은 한숨 속에서 지내고 있고, 각 나라는 저마다 살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 역시 끝없는 절망 속에서 벽장에 갇힌 것처럼 삽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필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손과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고통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나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며, 나의 죽음에 함께하시며, 추운 겨울날 나와 함께 추위와 싸우고, 나의 굶주림, 육체적인 부족함과 많은 질병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해방뿐만 아니라 동반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살기 위해 나의 고통과 절망에서 멀어지고, 외면할 때도 그분만은 언제나 어려움 중에 있는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곧 메시아를 맞이하는 길입니다. 자선을 통하여 메시아께서는 지금의 이 암울한 시기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증언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구세주 메시아여, 빨리 오소서.” 아멘. **필문**

##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 나의 삶 내어주기 : 시간 + 공간

교구 소림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행복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몸 상태도 괜찮고 게다가 날씨가 좋아서 금상첨화면 사랑하는 일이 참 쉽고 풍성하며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신이 납니다. 하지만 살면서 늘 그런 상태는 아니지요. 간혹 뭔가 예민하여 까칠하거나 무뚝뚝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저럭 관리가 되지만 이상하게도 꼭 그런 상태일 때 자극받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피곤한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짜증이 잔뜩 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2-13)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천해 낼 수 있는 형태로서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하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것처럼 내 생명, 내 삶을 내어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실 살면서 목숨을 던질 일이 그리 생기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나쁘고 짜증이 나 있을 때, 몸이 피곤할 때조차도 사랑해야 함을 잊어버리고 마는데 목숨을 내어주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떡해야 할까요? 포기하면 될까요?

우리는 물질세계 안에서 물리법칙과 자연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나이 들고, 먹고 자고 입고, 사람을 만나고 놓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수명이 다하면 목숨이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각자의 나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개인의 인생에서 각자의 생명은 시간이라는 물리법칙 안에서 유지되는 연속성을 가졌습니다. 나의 생명은 죽음까지 살아온 시간만큼의 총량이 됩니다. 따라서 목숨을 내어주는 일은 나의 시간을 떼어 누군가를 위해 주는 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아픈 친구를 방문하는 경우에 오가는 동안 세 시간을 썼다면 그만큼의 목숨을 내어준 것이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공간을 제 공합니다. 연인이 손을 잡고, 엄마가 아기를 안으며, 친구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가까울수록 개인의 영역, 공간을 내어주어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완전히 생명을 주는 것이며 동시에 일상 속에서 나의 시간,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나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세요. **필요**

## 미사 중 어느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나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실제 변화는 성찬 전례 중에 이루어집니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 위에 손을 모으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고 ‘성령 청원 기도’로 간청하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라는 ‘성찬 제정 축성문’을 바침으로써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성체가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53항 참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48,51)라고 하셨던 말씀이 성체의 신비를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변화를 실제 변화(transsubstantiatio)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제 개인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육체적 음식이지만 성체와 성혈(거룩한 몸과 피)로 변화됨으로써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일치시키는 영적 음식이며 사랑의 표지가 됩니다. 이러한 성찬 전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이미 초대 교회부터 거행되어 온 예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적이며 신앙의 신비입니다.

### 실체 변화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써 빵의 실제 전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실제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함”을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76항)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미사 전례』



## 윤유오 야고보 (?~1801년)



윤유오(尹有五) 야고보는 경기도 여주의 점들(현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에서 태어나 인근에 있는 양근 한감개(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로 이주해 살았다. 1795년에 순교한 교회의 밀사 윤유일 바오로는 그의 형이다.

일찍부터 형 윤유일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게 된 야고보는 고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에 교리를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형이 순교한 후에는 인근에 사는 조동섭 유스티노, 권상문 세바스티아노 등과 만나 기도 모임을 갖거나 교리를 연구하면서 신심을 북돋우었다. 또 1795년 초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지방 순회에 나서 양근에 도착하였을 때 그를 만나 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1801년에는 신유박해가 일어나 각처에서 신자들이 체포되거나 순교하게 되었다. 이때 윤유오 야고보도 양근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그곳 관아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그는 갖가지 문초와 형벌을 당하면서도 전혀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며, 관장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배교를 거부하였다.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형이 가르쳐 준 십계명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실천해야 할 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서적을 밤낮으로 외우고 익혔으며, 진실로 배교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결국 관장은 야고보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1801년 4월 27일(음력 3월 15일), 양근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큰길가로 끌려나가 동료들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되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제37회 자선 주일 담화문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경춘 주교의 제37회 자선 주일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61,1-27.10-11	제 2 독 서	1테살 5,16-24	복 음	요한 1,6-8.19-28.
화 답 송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 산골(散骨)에 관한 질의응답 ⑤

##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자연에서 나온 사람을 다시 자연에 맡기는 산골 행위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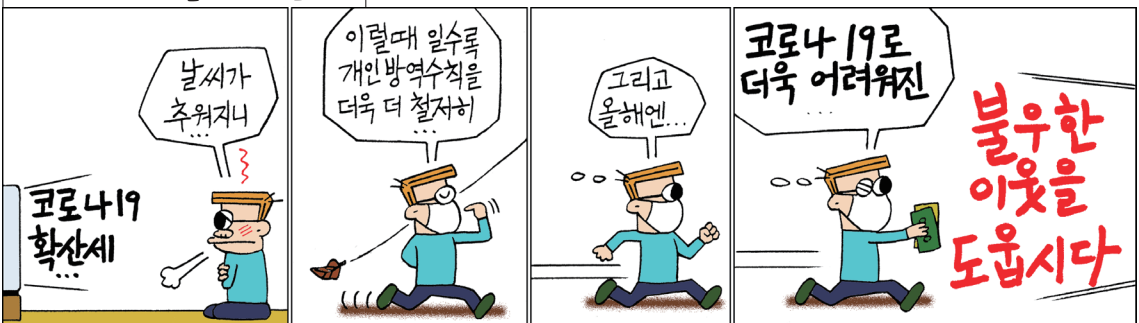
유골을 소중하게 모시지 않고 뿌려 버리는 산골 행위는 자연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을 자연 안에만 얽매어 계시는 분으로 축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골은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기에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연과 물질 자체가 하느님일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연과 물질은 하느님에게서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느님께서서는 자연과 물질을 움직이시되 그 자연과 물질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산골은 하느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도 부정하는 자연주의 사상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교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겨울(?)인 만큼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 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9일(토) 11: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2월 19일(토) 11:00 성모당

### 성소 | 피정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12.19(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성소자 초대

일시: 전화 상담 후 결정  
대상: 국내외 전교와 봉사에 관심 있는 39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강희아 수녀, (010)3679-7198

### 교육 | 모집 | 기타

####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일시: 12.22(화) 9:3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성모님을 사랑하는 55세 이하 신자  
문의: (010)8503-0228 / (010)8660-5201  
모임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2021.1.2(토)~30(토) 4주  
대상: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캠프

일시: 2021.1.8(금)~10(일) 2박 3일  
접수: 12.22(화) 선착순 양업고 홈페이지  
장소: 양업고등학교  
대상: 중학교 1~2학년 / 15만원  
문의: (043)260-5078

####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마감: 2021.2.10(수)  
과목: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일시: 2021.2~12(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대상: 15세 이상 남자 / (02)828-3600

####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 『KBS2 TV 다큐멘터리 3일』 방영 안내

지난 11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교구청 및 성모당 일대에서 촬영이 진행된 **KBS2 TV 다큐멘터리 3일** 프로그램이 오는 **12월 13일 주일 밤 11시 5분, 12월 14일 월요일 16시 55분**에 방영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www.spcfood.co.kr](http://www.spcfood.co.kr)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 앞 053-959-7175  
010-9597-7175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 (크리스티나)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색을 띄우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외) 721-8879 (발발진구)  
수성구 황금내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성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의를 이수윤(소피아), 홍정훈(대견안드레이)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차리

SM **수맥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 1588-533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정춘석(아우구스티노) 신부  
2003년 12월 13일
- 최덕홍(요한) 주교  
1954년 12월 14일

행사 | 모임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7080 밥콘서트 9.5**  
일시: 12.19(토) / 1.23(토) 20:00  
장소: 라이브클럽 락왕(대명동 계대네거리)  
유튜브: 밥밴드 검색(라이브 생중계)  
입장객 40명으로 제한(좌석간 거리두기)  
문의: (010)9577-7819

교육 | 모집

**파스카 청년성서 팀공부 모집**  
성경 공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대상: 청년  
문의: 교구 청년국, 255-1582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주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신입생 모집**  
접수: 12.21~31 / 월, 목 야간 강의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학생 전원 50% 장학금  
문의: 660-5252~4 / (010)6563-0409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 주말**  
382차: 1.8(금)~10(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780-4535

**제26기 뿌에리 칸도레스 청소년 모집**  
대상: 초3~초6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마감: 2021.1.31(일)  
과정: 입문, 중급, 성바오로영성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성경공부  
문의: (02)944-0819~24  
<http://uus.pauline.or.kr>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꽃차, 색소폰,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오카리나, 서양화, 사범자격과정꽃꽂이, 발성법, 가곡성가, 섬유공예, 태극권,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밀알회 후원회원 모집**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에 함께해 주세요.  
문의: 422-3411(내선 1번)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1월 중순~5월 초 10:00~17:30  
매주 화, 목,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선착순 8명)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143-5508

채용 | 안내

**교구청 경비 직원 채용**  
자격: 60~65세 신체 건강한 신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마감: 12.18(금) 16:00  
제출: 교구청 관리과  
문의: 250-3031

**효성초등학교 정규교사 채용**  
원서접수: 12.14(월)~17(목)  
채용 내용 및 인원 등은 효성초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www.dg-hyoseong.es.kr>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광빈(굴니엘모), 배명숙(에밀리아), 이효기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오픈**  
대상: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하신 분 (암환자 우대)  
문의: (054)373-3955 / (010)5225-4538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http://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열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올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정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농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10-6481-8848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견인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밤·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동행방향 20m)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피타미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학수업위원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건강검진은  
**점인병원**  
위·대장 내시경 5대암검진 일반검진  
대표전화 | 1688-7667

**리스토리결혼정보**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1년 전통 ♥ 성실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선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